

현대자본주의경제의 악성위기-디플레

박사 부교수 리영남

1. 서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경제위기를 막을수 없으며 그 파국적후과를 면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전집》 제57권 83페이지)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만연되고있는 경제위기에 대하여 옳바로 리해하는것은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자본주의경제가 겪는 경제위기들중에는 디플레도 있다. 디플레는 자본주의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각이한 형태로 발생심화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0여년간 세계적범위에서 만연되였다. 일본과 유럽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현대디플레는 경제발전에 막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쳤다.

론문에서는 디플레의 의미와 경제사에 기록된 대표적디플레를 개괄하고 현대디플레의 심화와 부정적작용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본론

2.1. 디플레에 대한 리해

디플레는 통화수축과 수요감소로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과 유통이 줄어들며 경제전반이 침체상태에 처하는 위기현상이다.

원래 디플레라는 말은 공기를 뽑는것, 수축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경제적측면에서는 물가저하 또는 유통화폐량의 감소, 경제장성의 정체 등으로 발현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디플레는 인플레이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간주되고있다. 인플레이가 통화팽창, 물가등가현상이라면 디플레는 통화수축, 물가저락현상이다. 결국 인플레이나 디플레는 다같이 화폐적현상으로서 통화의 팽창과 수축, 물가의 등가와 저락이라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인플레이시기에는 물가등가, 화폐가치의 저하로 화폐유통이 자극되고 투기가 성행하여 화폐유통과 신용이 팽창되면서 혼란과 위기가 조성된다면 디플레시기에는 물가저락, 화폐가치의 등가로 상품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생산과 유통이 저조해지며 이것이 또 리윤과 소득을 줄여 경제전반을 침체상태에 처하게 한다.

인플레이가 단순히 통화팽창이나 물가등가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것처럼 디플레도 통화수축, 물가저락현상 그자체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생산 및 유통의 축소, 경제침체의 심화 등으로 나타나는 위기현상이다.

디플레현상은 일반적으로 공황이나 불경기와 같은 경제침체기에 나타나군 한다. 공황이나 불경기에는 《파잉》상품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파산되며 지불능력있는 수요가 줄어들

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유통화폐량이 대폭 줄어든다. 사회전반에서 신용거래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통화수축현상이 우심해지고 경제전반이 저조해진다. 이것은 자본주의경기순환에 따라 발현되는 통화수축, 디플레현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통화수축, 물가저락을 초래하는 요인에는 수요의 감소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노동생산능력의 장성과 상품가치의 저하, 환율변동에 의한 수입물가의 저하, 가격기준의 변동 등에 의해서도 물가가 낮아지고 유통화폐의 규모가 줄어들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위기현상으로까지 작용하지 않으며 지어는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회적범위에서 노동생산능력이 높아지면 생산비용이 줄어들고 물가가 낮아지면서 유통화폐가 상대적으로 과잉될수 있다. 이 경우 통화가 은행금고에 잠겨있거나 개인들의 수중에 머물러있는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 노동생산능력의 장성과 생산비저하는 기업들의 리윤증대에 작용하여 투자의욕을 증대시킨다. 물가저락과 화폐가치의 상대적인상은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 투자와 소비규모가 늘어나면서 과잉통화가 점차 유통수로에 흡수되거나 높아진 화폐가치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통화수축현상이 해소될수 있다. 결국 물가저락과 통화수축은 기업의 리윤감소와 투자의욕저하, 구매자들의 소비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위기상태로 번져지지 않는다.

통화수축은 통화의 평가인상, 금수입가격의 인하 등에 의하여 가격기준이 직접적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도 발생할수 있다. 가격기준의 인상은 환율을 등귀시켜 수입가격을 떨구며 이러한 현상이 과급되면 국내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물가저락현상이 생기면 유통화폐량의 일부가 과잉되어 그것을 수축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자본주의국가는 통화량을 강행적으로 수축시켜 화폐유통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디플레정책을 쓸수도 있다. 공채상환을 중지하거나 높아진 시세로의 화폐교환 등은 유통화폐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디플레는 물론 주기적인 경기순환과정에 겪게 되는 불경기시기에 물가와 임금, 금리 등의 경제지표들이 저조해지면서 나타나곤 하는 일반적인 경기상태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와 반대되는 현상으로서의 디플레는 자본주의경기순환과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지어 디플레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개별적시기에는 경제가 일정하게 장성하기도 하였다.

2.2. 자본주의경제사에 기록된 대표적디플레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많은 인플레이적위기와 함께 디플레를 체험하여왔다.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겪은 디플레현상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19세기말 미국과 유럽나라들을 중심으로 지속된 디플레와 1930년대의 세계경제공황이후 발생한 디플레 그리고 20세기말~21세기초에 일본과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격화된 디플레이다.

19세기말의 디플레는 1873년부터 거의 20여년간 유미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었다. 1873년부터 1896년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서는 디플레가 만연되었다. 당시의 디플레는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고있던 금본위제의 제한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0여년간 지속된 디플레는 당시의 경기순환주기로 볼 때 한개의 경기국면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실제적으로 디플레지속기간에도 어떤 시기에는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디플레는 말그대로 물가저락, 유통화폐의 상대적

수축으로 발현된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1870년대 전반기부터 1890년대 중엽까지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물가가 매해 1~2%씩 떨어지고 류통계에서는 통화가 줄어들어 금융불안이 심화되었다. 이 시기 장기간 지속되는 물가저락으로 기업들의 리운이 줄어들어 기업과 개인들의 자산가치가 불안해졌으며 채무위기가 나날이 커져 장기화되었다. 또한 화폐류통이 혼란되고 류통화폐의 부족이 심화되어 은행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금융계의 혼란과 위기도 더해갔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디플레의 원인을 값높은 제품의 수입에서 찾고 보호무역주의를 되살리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기의 디플레는 금본위제라는 자본주의화폐제도의 제한성으로 하여 지속된 위기현상이었다. 금본위제는 금을 유일한 화폐상품으로 인정하고 화폐공급량을 금의량에 의하여 제약하는 화폐제도이다. 금본위제는 경제가 발전하고 상품 및 봉사류통액이 늘어나는데 따라 화폐를 신축성있게 증대시키는데서 제한성이 있다. 물론 금본위제에서도 은행권의 신용적담보에 의한 발행질서에 따라 금준비를 초과하여 은행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권발행이 발권은행의 금준비에 의하여 제약된다.

생산 및 류통규모의 증대에 화폐의 증대가 따라서지 못하는 경우 류통계의 실제적인 화폐량이 필요통화량만큼 보장되지 못할수 있다. 이 경우 물가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오르면서 자산을 상품이나 유가증권으로가 아니라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며 이것이 화폐의 류통령역에서의 퇴장을 촉진시켜 통화수축현상을 더해준다.

20여년간 디플레가 지속되는 과정에 조성된 화폐가치의 등귀현상은 자연히 금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이것은 세계 각지에서 금생산을 늘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1896년부터 금의 공급량이 늘어나 금가격의 등귀가 정지되고 통화공급량의 규모도 증대되어 디플레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의 디플레는 당시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휩쓴 대공황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1929년 10월 뉴욕주식시장의 주가대폭락을 계기로 폭발한 세계경제공황은 자본주의세계 전반에서 물가와 임금, 국민총생산액의 대폭적인 저락을 가져왔다.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물가와 국민총생산액이 두자리수로 저하되고 1932년에는 실업률이 25%에 이르렀다.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속에서 생산비와 판매수입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몰락되고 실업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은 소비수요를 감소시키고 물가저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었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나날이 심해지는 긴축과 혼란속에서 투자와 경영규모를 극히 줄이고 대세를 관망하면서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며 현상유지나 하는것으로 만족하고있었다. 이것 역시 통화수축과 경제침체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런 속에서 1933년에 등장한 루즈벨트정부에 의하여 《뉴딜》정책이 제창되고 디플레 극복이 시도되었지만 미국경제는 침체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채 1937년에 새로운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말려들고말았다. 결국 1930년대의 디플레는 자본주의경제공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고 뒤이어 폭발한 1937년-1938년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하여 전면에서 제기되지 못하였다.

20세기에 자본주의세계에서 디플레는 인플레이의 극복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취급되어 대체로 논의밖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 자본주의는 금본위제의 붕괴와 관리통화제의 도입,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전후경제복구, 경제의 군사화의 추진 등을 경과하는 과정에 방대한 규모의 통화를 람발하여 인플레이에 시달려왔다.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이후시

기 경제사에 기록된 초인플레이를 비롯하여 오래동안 인플레이로 인한 경제적인난국을 겪으면서 그로 인한 정치적혼란과 경제적파국을 극복하는데 급급하였으며 지어는 물가안정, 통화공급량중시, 경제의 《안정성장》등을 정책적목표로 제기하면서 디플레이시기가 오기를 갈망하게까지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 인플레이가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바라던 디플레이가 발생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본주의경제전반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20세기말부터 자본주의세계전반에 걸쳐 디플레이상태가 오래동안 지속되게 되었다. 1990년대 중엽 일본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상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세계전반에 파급되었으며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 10여년간 세계적범위에서 장기화되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초에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불량채권이 대량 발생하고 잇달아 통화긴축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5년이후에는 엄중한 《디플레이소용돌이》로 악화되어 갔다. 1997년부터는 물가의 전반적동태를 반영하는 종합물가지수가 전해에 비하여 낮아지기 시작하였는데 2002년 3.4분기에는 전해 기간에 비하여 2.4%나 낮아졌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도 일본만큼은 악화되지 않았지만 각이한 정도에서 디플레이현상이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2002년 10월에 끝나는 회계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1987년수준에 머물러있었으며 미국의 공업생산은 이미 13개월째 연속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공업생산감퇴가 가장 오래 지속된것이었다. 21세기에 들어와 주요자본주의나라들중 10여개 나라가 경제쇠퇴기에 직면하였으며 세계의 75%에 달하는 나라들의 장성률이 2000년에 비하여 떨어졌다. 이 시기의 디플레이는 개별적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발전도상나라들에까지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되었다.

일본과 유럽을 기본으로 디플레이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으며 오늘도 초완화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에 의하여 일정하게 완화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자본주의나라들에 여전히 어두운 그늘을 지어주고있다.

2.3. 현대디플레이의 심화와 그 요인

2.3.1. 현대디플레이의 심화와 부정적작용

현대디플레이는 일본에서의 거품경제붕괴와 그에 뒤따른 장기침체,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세계적범위로 파급된 금융위기, 2010년의 유럽채무위기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난 자본주의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어울리면서 장기간 지속되었다. 디플레이는 초기에 물가저락, 화폐가치의 등귀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지만 점차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소득과 구매력마저 위축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으로, 기업들은 언제 파산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돈을 깊이 건사하고 쓰지 않았으며 자본주의사회전반이 활력을 잃고 자포자기의 침체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디플레이로 하여 자본주의경제는 《4저》(저물가, 저투자, 저소비, 저성장)의 악순환에 깊이 빠져들었다. 물가저락은 소매류통액을 줄이고 기업들의 판매수입을 감소시켰으며 리운의 규모를 줄이고 투자를 감소시켜 생산장성을 억제하였다. 물가의 저락과 동반되는 자산가치의 감소도 한편으로는 그 소유자들로 하여금 보유자산의 감가를 최소화하려는 요구로부터 소비 및 투자지출을 줄이는 작용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리자부담을

무겁게 하여 리운의 총체적크기를 줄이고 수요를 줄이는 작용을 하였다.

디플레는 경기침체의 결과이면서 그자체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디플레가 장기화되면서 자본주의사회전반에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완만히 저하한다는 관념이 정착하면 그것은 다시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된다.

우선 디플레는 기업들로 하여금 물가를 낮추고 통화수축을 심화시키도록 작용한다. 기업의 견지에서 보면 디플레상태에서는 제품이나 봉사의 가격을 올릴수 없기때문에 판매수입이나 수익도 늘어나지 않아 인건비지출이나 설비투자를 될수록 억제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들의 임금과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개인들은 임금과 소득이 오르지 않으므로 소비를 억제하려 한다.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봉사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이로부터 디플레가 심화된다.

또한 디플레는 기업의 금리부담을 크게 하여 투자의욕도 저하시킨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결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의 동향이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예상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리이다. 디플레가 지속되면 명목금리가 변하지 않아도 예상물가상승률이 0이거나 미누스이기때문에 실질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즉 명목상의 차입금리가 변하지 않아도 물가나 증권시세가 낮아진다고 예상되면 기대되는 수익은 적어지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차입금의 상환부담은 커진다. 이런 조건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해지리라는것은 당연하다.

또한 디플레는 개인의 소비지출의욕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가계에 있어서 앞으로 가격이 낮아진다고 예상되면 가격이 낮아진 후 상품이나 봉사를 구입하는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소비를 될수록 미루려는 경향을 가지게 한다.

다른 한편 디플레하에서는 자산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것으로 하여 투자와 소비가 줄어든다. 디플레는 생산이나 유통 등 기능자본의 운동령역에 대한 투자나 주식 등의 위험성자산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한편 명목금액이 외형상 줄지 않는 현금이나 예금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투자나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될수록 자기의 자산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게 한다.

디플레하에서는 기업이나 가계의 위험부담이 소극화되는 속에서 가격의 저락, 매상 및 수익의 감소, 임금 및 리운의 감소, 실질금리의 상승, 소비 및 투자의 쇠퇴, 현금과 예금보유의 증대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와 15년간 일본에서는 명목국내총생산액과 고용자소득이 1997년을 정점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낮아졌다. 경제전반이 명목상에서 볼 때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고 말할수 있다. 또한 1998~2012년사이에 소비자물가가 계속 낮아져 물가상승률이 평균 -0.3%에 달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물가저락, 경기후퇴속에서 일본에서는 경제전반이 계속 축소할것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투자와 소비의 억제, 화폐보유확대, 물가저락과 생산감퇴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장기적인 《디플레균형》에 맞다들고말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기국면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두분기이상 실질국내총생산액이 감소하면 그 국면을 침체기라고 하고 경제장성률이 1년이상 장기장성수준이하의 수준에 머물러있으면 경기의 감속국면으로 인정한다. 이러

한 침체기, 불경기에는 상품과 설비의 재고가 과잉되고 시장용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기업 리윤이 줄어들고 경제장성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의 경기상태는 디플레로 인한 경제침체상태라고 말할수 있다.

2015년 3월에 미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1.2%로 떨어지고 설비투자률은 3년전에 비해 20%나 줄어들었으며 생산설비의 23%가 벗어있었다고 한다. 2014년 당시 일본은 22년 동안의 년평균물가상승률이 0.1%, 경제장성률이 0.8%로서 장기침체디플레에 빠져있었으며 유로사용국들의 경제장성률은 겨우 0.4%, 물가상승률은 0.3%에 불과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는 자본주의나라들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법에 매여달리게 하였다. 2010년대 중엽이후에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디플레현상이 일정하게 완화되었지만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디플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2016년 2.4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액은 1.4분기에 비하여 0.05%밖에 장성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년률에 따라 계산하면 0.2%밖에 되지 않는것이였다. 일본에서는 디플레가 20여년간 심화되는 속에서 사람들속에 《디플레기대》가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투자와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디플레의 장기화에 작용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2014년과 2015년에 물가상승과 실업률인하 등 디플레상태의 개선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발표되었지만 경제전반의 침체국면은 여전히 가셔지지 못하고있다.

2.3.2. 현대디플레의 심화요인

최근의 디플레가 자본주의경제의 악성위기로 오래동안 지속되게 된것은 일련의 요인들이 작용하였기때문이다.

현대디플레가 장기간 지속되게 된것은 우선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장기간 지속된 경제의 인위적인 팽창인 거품경제가 붕괴된것과 관련된다.

지난 시기의 디플레는 주로 경제공황에 뒤이어 발생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19세기 후반기의 디플레는 1873년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직접적인 동반물로서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의 디플레도 1929년 10월부터 시작된 파괴적인 대공황으로 경기후퇴와 통화수축이 심화되면서 전개되었다.

경제공황의 진척과정은 경기의 급격한 후퇴를 동반하기때문에 이 시기에 물가저락과 신용파탄으로 인한 통화수축이 대체로 일어난다. 디플레가 경제공황과 불경기의 동반물로 되는것은 필연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경기순환의 한 국면으로서의 공황이 아니라도 디플레는 다른 여러가지 요인의 복합으로 생길수도 있다.

현대디플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있는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분리현상과 그로 인한 경제의 외형적팽창, 거품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분리는 화폐의 운동이 현실적재생산을 매개하는것이 아니라 증권투자나 환자거래 등 금융거래영역에서 주로 진행되는데서 나타난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일반기업들까지도 자기의 본업과 관련이 없는 증권거래, 금융거래에 대대적으로 참가하고있다. 그들은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각종 명목의 수형들과 사채를 발행하여 류통시킴으로써 금융거래를 통한 보충적수익을 얻으려 하고있으며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은 신용도 의제자본의 거래영역에서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거래액을 기형적으로 늘이고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경제활동규모와 수익을 외형상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내부류보》(기업리운중에서 리익배당금을 제외한 리익잉여금으로서 자본축적에 리용되는것)의 장성이상으로 투자가 진행되어 고정자본이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내부류보》의 장성률이 대폭 떨어진데다가 그것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일본의 대기업들의 자산중에서 고정자본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유가증권의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어 오늘에 와서는 고정자본의 규모를 룡가하고있다. 이것은 경제규모의 확대가 증권형태의 자산확대를 위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거품경제상태가 붕괴되면 증권시세가 폭락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증권자산의 가치가 대폭 감소되고 채권채무관계의 균형이 파괴되어 경제침체와 통화수축현상이 빚어진다. 이런 현상이 일본과 유럽,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최근시기에 나타난 디플레적위기이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엔시세상승에 따르는 국내수요주도형경제에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국내시장에 방대한 규모의 과잉자본이 형성된데다가 정보산업부문 등에 조성된 과장된 수요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자본투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주식을 비롯한 증권시세와 대도시들과 산업중심지들을 기본으로 하여 전국적범위에서 토지가격도 대폭 상승하였다. 이것은 실제적인 재생산순환의 활성화로 인한 수요의 증대에 의한것이 아니라 순수 금융거래의 확대와 인위적으로 과장된 수요에 따르는 거품현상이었다. 이러한 거품경제가 1990년대초의 금융긴축조치와 그밖의 요인에 의하여 삽시에 붕괴되고 경제전반이 장기적인 디플레에 빠져들었던것이다.

거품경제가 붕괴되어 디플레가 발생한 현상은 1990년대에 동남아시아나라들과 미국, 유럽나라들에서도 일어났다.

거품경제의 붕괴는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를 폭락시켰다. 자산가치의 폭락은 기업들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자산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고 그만큼 부채의 부담을 크게 하는 작용을 하였다. 거품경제시기에 부채를 늘어 증권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기때문에 이런 자산의 가치폭락으로 인한 압박은 일반적인 채무초과로 인한 압력보다 훨씬 강하다. 이러한 채무는 기업의 본업과 관련된 채무인것이 아니라 각종 형태의 금융거래조작과 관련된것으로서 자기의 본업으로부터 조성된 수익을 채무보상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은 생산과 류통을 침체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거품경제의 붕괴로 하여 디플레가 발생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는 장기적인 디플레, 경제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현대디플레가 장기간 지속되게 된것은 또한 자본주의사회전반이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오늘 자본주의는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채자본주의로 전락되었다.

2014년에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의 국내총생산액에 비한 국가부채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으며 세계 각국의 국가부채총액은 82조US\$로서 연간 세계국

내총생산액의 1.3배에 이르고있다.

기업들도 자기 자본의 몇배, 지어 몇십배에 달하는 자금을 꾸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있는데 유럽동맹에서 가장 신용있는 은행으로 알려진 도이칠란드중앙은행도 총자산중 자기자본이 겨우 2.5%뿐이고 97.5%가 부채자본이라고 한다.

가정세대의 80%이상이 빚을 지고있으며 가계부채가 가계년간소득액을 초월하여 정상소득으로는 빚을 갚을수 없는 처지이다. 가계부채액비율이 국내총생산액의 80%로서 정부가 지고있는 빚과 거의 같은 수준이어서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와 기업, 개인이 진 빚의 총규모는 자본주의국내총생산액의 3배에 달하며 이것은 자본주의전체가 3년동안 전혀 소비를 하지 않고 갚아야 할 액수라고 한다.

이렇게 자본주의전체가 빚더미우에 올라앉아 소득의 많은 몫을 소비지출이나 투자가 아니라 채무상환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다나니 소비가 줄고 물가가 계속 떨어지며 경제전반이 침체되는 디플레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현대디플레가 장기간 지속되게 된것은 또한 산생저하, 고령화로 인구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난것과도 관련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인구장성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지 7년이 넘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몇년안에 인구가 줄게 될것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들의 산생률은 1.71명으로서 한 나라에서 정상적인 사회경제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수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다.

자본주의나라들은 전체 인구에서 65살이상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고령화률)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특히 일본, 도이칠란드, 이딸리아는 20%이상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프랑스, 네델란드, 스웨리에, 뽀르투갈을 비롯한 주요자본주의 나라들도 5~6년안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설것이라고 한다.

인구구조에서 소비가 왕성한 젊은 층이 줄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시장과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활동영역에 직접 작용하여 수요감소와 소비축소를 일으킴으로써 디플레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본이 생산에 인입될 인구가 줄기 시작한 1996년부터 디플레위기에 빠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들에서 인구장성률이 떨어지면서 디플레가 발생한 사실은 이를 실증해 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악성디플레를 극복할 근본적인 방도를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있다.

미국, 영국, 스웨리에, 일본과 유로사용국들이 자본주의경제에서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0.5~0.05%의 초저금리정책과 지어는 역리자률정책과 같은 상상밖의 수단까지 실시하면서 디플레극복에 매달리고있지만 경제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있다. 아무리 금리를 낮추면서 자금대출을 자극하지만 사람들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화폐가치가 올라 리자부담이 커지기때문에 돈을 꾸려 하지 않고있다.

더우기 채무가 루적되고 불량채권이 많은것으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채무상환에 쓰고있기때문에 돈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은행에서 은행으로 공회전하고있으며 대부리자를 받아야 리익을 얻고 채산을 맞추게 되어있

는 은행들이 예금자들에게 리자로 내줄 돈이 없어 예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리자률을 낮출뿐아니라 공채발행과 초과대부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화폐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2008~2013년사이에 약 5조 US\$의 돈을 시장에 풀어 화폐공급량을 3배나 늘이었지만 이 돈은 기업투자와 개인소비에 리용되지 않고 리자률이 높은 신흥공업국으로 빠져나가거나 은행에 다시 돌아와 잠겨졌다.

결과 리자률이 내려가면 대출과 투자가 늘어나고 화폐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지면 인플레이가 발생하는것이 필연적이라는 일반적도식도 통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본주의나라들은 갈팡질팡하고있다.

더우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의 중추인 중앙은행의 기능이 마비되어 재정금융적조절방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기형적인 투자와 불필요한 수요를 조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에 매달리고있지만 그것도 1회성효과로 끝날뿐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경제계에서는 인플레이는 돈을 거두어들이면 해결되었지만 디플레이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아우성치고있다.

3. 결론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초완화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실시로 거액의 화폐가 방출되었지만 디플레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위기에 대한 우려를 산생시키고있다.

대표적으로 디플레이가 오래동안 심화되어온 일본에서는 2012년말에 보다 심화된 초완화재정금융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심각한 재정금융적위기를 내포하고있어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디플레이극복을 위한 금융완화정책실시과정에 고용의 외적증대에 비한 실질소득과 소비의 상대적감소, 경제의 저장성의 지속과 대기업위주의 리익재분배, 량적, 질적완화정책에 의한 정부의 채무증대와 재정금융정책실시의 한계의 표면화 등 새로운 문제들이 산생되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외적으로는 취업이 늘어나지만 그것이 소비의 증대로 이어질 수 없고 경제전반에서의 투자증대와 경기회복도 불가능하며 경기호전을 위한 경제정책의 실시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결국 디플레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가 구조적으로 막히였으며 더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수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상승과 하강의 자연발생적경기변동과정에 발전하는 자본주의경제에서 모순과 위기가 심화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사적소유와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경제전반이 무정부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적혼란과 위기가 날을 따라 격화되게 된다.

우리는 자본주의경제의 취약성과 부패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여야 할것이다.